

#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정치권 ‘들썩’

9년만의 정권 교체

文대통령·여야 의원들

내일 봉하마을 총출동

20일 광화문 문화제 성황

오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한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총출동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만큼, 이번 추도식은 예년에 비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인들의 참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외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외 체류 중이거나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원이 봉하마을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은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에게 ‘신고’를 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6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참여한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을 예약해 두는 등 이미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도 봉하마을을 찾기로 해 의원의 참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도식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광화문 시민문화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충남지사의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 서거 8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민문화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아 각종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가운데 이날 문화제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새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승화하는 모습이었다.

대선 경선의 경쟁자이자 ‘포스트 문재인’을 꿈꾸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가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면서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

다. 노무현재단의 주최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라는 이름으로 열린 문화제에는 오후 9시 기준 1만5000여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로 토코소를 열었다.

안 지사는 “문 대통령이 이 시대의 상쾌한 공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더 환한 웃음과 잘 될 거라는 기대로 곳곳에 활력을 주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시대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요새 제가 청와대에 앉아있

는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직원 깨어있는 국민의 행동하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가수 안치환씨와 조PD, 크라이닉, 장필순씨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합창도 이어졌다. 시인인 도종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시를 낭송하면서 슬픔과 감격이 섞인 듯 눈물을 쏟기도 했다.

행사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됐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 우원식 “협치의 상머슴 되겠다”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민주 원내 운영 방향 공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향후 원내 운영 방향과 관련,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을 5대 키워드로 삼고서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협치 분야에서는 ‘상머슴’이 되기로 했다”면서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의장과 5당이 만나는데, 야당과의 정례적 회동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 분야에서는 “정의와 국민집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검찰·국정원·방송 개혁 등 정의를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소통’을 위해 “고위·현안·지역별 당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당내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영춘 의원이 간사를 맡는 중진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야당의 어떤 정책이라도 수용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키워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인 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민주당 역시 대통령을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찾아가는 민주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재명 “5·18 진상규명 기대 크다”

대선 후 첫 광주 방문...묘역 참배·금남로 시민총회 참석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1일 광주 5·18 국립 민주묘지에서 “5·18진상규명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 시장은 이날 5·18묘지와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지를 잇달아 참배했다.

그는 “다른 세력들 눈치를 보느라 못했던 것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민주정부에서 국민의 뜻, 과거의 영령들을 받들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보상·기록을 남기는 일 등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묘지 참배 전 작성한 방명록에 이 시장은 ‘광주정신을 살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치는 나라, 평화로운 통일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로 치러지는 5·18 민주대성회를 재연하는 행사인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5·18의 고통이 이번 촛불 혁명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광주 시민총회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실현해 보는 행사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고, 성남시 정책도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전시하고 있어 찾아가 보려 한다”며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금남로 행사장을 돌며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공식 행사를 마친 뒤 광주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지자들과도 만났다.

최권일기자 cki@

## ‘외우내환’ 국민의당

文정부 소통 행보에 정치적 입지 갈수록 좁아져

바른정당 연대론 다시 부상...민주·동교동계 탈당 거론

국민의당이 점차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와 파격 인선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향후 진로를 놓고 내용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가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자 구(舊) 민

주·동교동계 인사들이 집단 탈당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상임고문, 김옥두·박양수·이훈평 전 의원 등은 지난 19일 가진 오찬 모임을 하고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집단 탈당도 불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보다는 호남 민심을 다시 끌어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차라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 한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남아 있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이러한 집단 반발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적으로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은 물론 대선 전 당에 합류해 김동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은 이연주·최명길 의원 등이 적극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 여론이 동의

하는 선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노력이 가능 하다”며 연대는 물론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연대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곧 있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김중민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연대론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원순 아세안 특사 아시아 순방

송영길 러시아 특사 오늘 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순방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마닐라(필리핀)·자카르타(인도네시아)·호치민(베트남) 등을 잇달아 방문해 각국 정상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양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

르테 필리핀 대통령, 23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25일 쟀 다이 광 베트남 국가주석과 각각 만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 한반도 주변 4강 특사단 파견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 러시아 특사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2일 출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송 특사는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모스크바로 출국한 뒤 방러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정기자 jkpark@연합뉴스

#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